

초3·중1, '기초학력 평가' 실시

서울시교육청 지원시스템 활용
내년부터 첫 진단검사 시행
학습부진 학생 2차 심층진단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진단검사 결과 난독이나 경계성지능 등 현저한 학습부진 학생으로 진단되면 별도의 전문 진단·치료도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보장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업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초3, 중1 시기에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s-basic.go.kr)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초3 대상 진단검사에서는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능력에 '관계성'을 더한 4가지를 파악하고, 중3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학습능력 진단검사로 진행된다.

진단 결과 단순 학습부진 학생에 대

서울시교육청.

해서는 단위학교 보정지도가 이뤄지도록 하지만,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심각한 학습부진요인을 가진 학생은 지역별 학습도움센터에 의뢰해비언어성 지능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KOLRA(한국어읽기검사) 등 2차 심층진단을 받게 한다.

2차 심층진단에서 특수복합요인으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서울학습도움센터 난독·경계성지능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기관의 검사와 치료, 연계기관 및 출학습상담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아울러, 초1의 학교생활 적응시기를 거쳐 세분화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초2 시기에 한글 해득과 기초수학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습 수준을 파악해 맞춤 지원하는 초2 집중학년제도 운영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특히 초3이 되면 전년도 담임과 현 담임이 학생의 성장이력을 공유하고 과정중심평기를 운영해 기초적인 학습부진이 의심되면 전문가 지원을 받게 한다. 또 혁신학교를 포함해 공립초 2학년 약 830학급 내외를 공모·선정해 학급당 50만원의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재 초3 대상 학습·정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유레카 프로젝트'를 초2와 중1로 확대한다.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 졸업 전까지 국어 기본 문장을 이해하고, 영어 단문장을 읽을 수 있으며, 수학 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중학교 단위 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도 추진된다.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는 학생 참여 수업 중심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습결손이 누적되었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을 개별 지도하되, 희망학교는 협력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지원하는 서울시교육청 내 서울학습도움센터와 교육지원청 1곳에 학습도움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추석 앞두고 구인 활발... 알짜 알바는?

공고 2700건 中 백화점·유통 53%
추석 특수 배송 알바, 강도·일당 高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가까워오면서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생 채용이 잇따르고 있다. 평소보다 높은 급여를 내세워 알바생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5일 알바몬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물류, 판매직, 택배 알바 중심으로 구인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 유통업계는 일찌감치 채용을 시작, 전체 추석 단기 알바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채용한다. 지난 3일 기준 알바몬 추석알바채용관에 등록된 추석단기알바·공고 2700여 건 중 53%가 백화점·유통점 알바다.

현대백화점이 물류센터 3900명을 포함해 5500명 규모의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한다. 분야는 물류, 판매, 판

3일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밀려드는 택배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족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세트 배송을 위한 정보확인, 전표 입력, 상품접수, 해피콜, 진열, 상품권 판매 등 다양하다. 급여는 직무와 근무시간에 따라 상이하다. 시식 등 식품 관련 직무의 경우 보건증이 필요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명절 전후 선물세트와 상품 배송이 급증하면서 주요 택배와 물류센터 중심의 단기 알바 채용도 이어진다.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배송알바 외에도 물품 상하자, 입출고, 검수, 포장, 단순노무, 사무보조 등 다양하다. 배송 중 물품 도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2인1조 배송에서는 함께 차량에 탑승해 주차장에서 집앞까지만 배송을 돋는 배송보조 알바도 모집한다. 배송업무는 노동강도가 높은 편으로 급여 당일지급, 높은 일당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다.

귀성객이 몰리면서 터미널 보안 검색요원, 매표, 수표 요원 추가 배치와 휴게소 계산원, 청소, 판매, 푸드코트 등의 알바도 모집 중이다.

한국민속촌은 12일부터 나흘간 진행하는 추석 연휴 맞이 가을행사에 투입되는 행사장 스텁프 투어 운영, 관람객 의상체험 운영을 돋는 스텁프 등을 모집 중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美 공군 사령관, 지휘비행으로 굳건한 동맹 확인

강릉기지, 과거 역사적 작전 수행

한일지소미아협정(GSOMIA) 종료 등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과 미국 공군 사령관이 같이 하늘에 올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였다.

공군은 5일 황성진 공군작전사령관과 케네스 윌스바흐(Kenneth S. Wilsbach) 미 7공군사령관이 강릉기지를 방문해 지휘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한미 공군사령

관의 지휘비행은 양국 공군의 우정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연합공중작전 수행을 다짐하고자 계획됐다.

특히, 양국 공군 사령관이 지휘비행을 실시한 강릉기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다. 이곳은 한국전쟁(6·25) 당시 최초 전투비행부대가 전개해, '대한민국 공군 단독 출격',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등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곳이기 때문이다.

두 사령관은 F-5 전투기 지휘비행

에 앞서, 함께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들과 브리핑에 참여했다. 지휘비행을 마친 후에는 비행대대 대기실을 방문해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매진하는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황성진 사령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도 한미 공군은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해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성공적으로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기업 공채↓ 수시채용↑... 구직자 긍정적

잡코리아, 취준생 2405명 설문 응답자 53.2% '취업에 유리할 것'

(취업시즌)에 집중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돼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질 것 같다'(59.0%)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업별 채용규모가 더 증가할 것 같아서'(48.7%),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40.2%) 순이었다.

취준생 절반이상(54.8%)은 수시채용 확산이 '본인의 취업에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잡코리아가 올해 하반기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대졸 학력의 취업 준비생 2405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신입공채가 폐지되고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채용전형의 변화에 대해 취준생 절반 이상은 '수시채용 확산이 나의 취업에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채용 확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특정기간

/한용수 기자

한편, 취준생들은 올해 하반기 취업 성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복수응답)으로는 '자소서 작성 연습을 했다'(42.7%)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면접 연습'(41.7%), '지원 기업분석'(40.7%),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32.3%), '전공 공부'(25.7%)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서울대 공대팀, 학생 디자인 경연 준우승

서울대 공대는 기계항공공학부 항공우주비행체설계 연구실의 CRANE 팀(강세권 석사과정 외 10명, 지도교수 이관중)이 '36회 학생 디자인 경연대회(36th Annual Student Design Competition)'에서 대학원 부문 신인상과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헬리콥터 분야 최고 권위를 갖는 미국 수직 비행 협회(Vertical Flight Society, VFS)가 주관하고 항공회사 에어버스 후원으로 진행했다. 아시아 단일팀으로 신인상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관중 교수와 학생팀 CRANE

/서울대 공대

준우승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 최종 결과는 VF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국방부, 전역예정 장병 맞춤형 취업 지원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140여개 기업이 현장에서 장병 200여 명을 채용하는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국방부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 후반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매년 3월 국방부는 취업박람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후반기에서 추가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역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로 전역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표어 아래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아 부처 협업 행사로 진행된다.

국방부와 KB국민은행, 국방전직교육원 주최·주관하고,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삼성중공업 ▲포스코 ▲

삼양그룹 등 대기업 그룹사 및 우수 중견·중소기업 등 구인 소요가 있는 14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박람회 전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